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문화예술위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에 대비하자



이무용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증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간 약 3600억 원의 운영예산에 문화예술지원 사업비로만 약 900억 원을 사용하는 한국 최고의 문화예술지원 정책기구라 할 수 있다.

한 달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5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1973년 발족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전신이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증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간 약 3600억 원의 운영예산에 문화예술지원 사업비로만 약 900억 원을 사용하는 한국 최고의 문화예술지원 정책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위원회가 2년 후, 즉 2012년이면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핵심 공공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곳으로 이전하게 돼 있어, 바야흐로 광주·전남이 한국문화예술 부흥의 전진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문제는 우리 지역이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 창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필자가 첫 회의에서 받은 느낌은 예술위원회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는 점도 있고, 협력기관들이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언급되고 있지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위원회는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그에 걸맞은 지원정책 방향 재설정 및 지원사업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위원회의 임무와 비전, 전략을 새롭게 짜는 작업을 곧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와 혁신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전남이 협력하여 한국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문화진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예술위원회의 광주·전남 이전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얻고, 예술위원회의 준비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곧 설립되는 광주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이다. 일반적 관역자단체 수준의 재단이 아니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이끌어가는 문화재단으로서, 향후 예술위원회와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전국에 발신할 선도재단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문화재단이 전략적으로 추구했으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문화수도의 문화재단에 걸맞은 리더십과 파트너십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바란다. 현재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협력관 제도, 전국지역문화협의체 운영 등의 지역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예술위원회와 재단 간 파트너십 구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 아울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예술재단, 전남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 관련 기관 및 혁신도시 추진 그룹들과의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추구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가장 '문화예술혁신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한다.

둘째, 문화예술혁신도시를 이끌어가는 문화재단이라는 확장된 비전과 전망 속에서 창조적인 문화전략과 사업을 구상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예술창작역량, 문화예술네트워크, 예술을 통한 문화나눔, 지속가능 경영시스템을 4대 전략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예술위원회의 사업방향에 조응하고, 그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사업들을 발굴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가장 '창조문화포럼'을 조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인력을 미래지향적, 창조적인 인재로 구성하기 바란다. 최근 대표이사과 사무처장,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었고, 곧 직원을 공개채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진의 경우 예술계의 원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재단의 창조성보다는 안정성을 더 중시한 느낌이 든다.

이례적으로 문화관광공실이 조직에 편제될 예정이지만, 관광과 축제 전문가가 이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 경영관리와 시설운영을 위한 문화경영 전문가도 부족한 듯하여 아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창조성, 윤리성, 통합적 사고력, 배려와 존중의 마음, 실행력과 냉등 미래 마인드를 갖춘 문화전문인력을 선발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인력채용 과정과 인사시스템을 전문화, 투명화했으면 한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과 극대화해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등 광주지역 3곳이 문화사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강연대 광주시장은 1일 동구 금남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과 남구 송암동 CGI(컴퓨터 형성 이미지)센터, 서구 양동 금호생명 빌딩 등 3곳이 투자진흥지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광주의 문화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전당 주변의 진흥지구 지정은 구도심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진흥지구에 500개의 문화관련 산업체를 유치해 문화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전당 진흥지구 내 공실률이 높은 5층 이상 25개 건물을 선별해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4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기업을 위한 주차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CGI 센터 주변에는 디지털방송지원센터 설립하는 등 조성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진흥지구 지정으로 문화기업을 위한 입주기업은 각종 세제 감면과 고용 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오는 2014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가 가장 큰 현안이다. 만약 민간유치된, 정부지원이든 사업비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경우 진흥지구 지정은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 민간 유치는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해 보다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진흥지구와 문화전당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이는 문화기업을 위한 주차 여건을 살리고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도의회 친목단체 지원 혈세 모두 반납하라

전남도가 전·현직 도의원의 친목단체에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입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가족이나 열악한 재정 형편에 현안 사업 예산까지 줄이는 상황에서 '의회 똥 찜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 정책기획관실의 회합력담당 부서는 '영산강사업이 전남 발전에 미치는 효과 연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명목상 연구비이지 내용적으로는 도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동우회 운영비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또 올해와 지난해에도 '지역축제'와 '투자유치'와 관련한 연구비를 명목으로 5000만 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의정동우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연구비라는 이름으로 편법을 택한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의

정동우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편법 지원을 인정했다.

이두리 의회의 눈치가 보이더라도 집행부가 앞장서서 편법을 조장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회 비위 맞추기'라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도의회 역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편법을 당연시 받아 들이고, 수년 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왔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도의회 쪽에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편법임을 아는 집행부가 스스로 행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도의회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명목상의 연구비를 삭감해야 한다. 지금까지 편법으로 지원 받아 사용한 의정동우회 운영비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집행부든, 의회든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중고칼럼



조영대

4대강 개발 문제, 청목회 및 대표론 사건을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에서 쏙 들어가 버리게 한 전안환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여야 하지 않았을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확진 방지는 원칙이다. 다시는 복측의 도발이 생기지 않도록 경정 대응하겠다는 모순된 정책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갈피 잡지 못하는 꼴에 국민은 어찌하란 말인가... 전군 여담대표가 포격 맞아 그를 린 알부미늬 불통들을 포탄 탄피라고 하며 들고 서있는 꼴에 기가막힌다. 헛

의 목숨도 기꺼이 바칠 줄 알아야 하거든, 대다수가, 그것도 잘났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수록 대의보다는 자신의 인일을, 많은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지키려는 탐욕스럽고 비겁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을 가르치면서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고 말한다. 노자의 도자기의 비유에 의하면, 찰흙을 빚어 만든 그릇도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도자기의 쓸모 있음은 딱딱한 겉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따라서 쓸모없는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빛정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상대의 자존심과 두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무를 꿰고 구걸해 와야 도와주겠다. 그게 현실성 있는 소리인가? 이에 대해선 TV방송에서나 신문지상에서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언급되고 있어 내 나름대로 할 말도 많지만 오늘 그 주제는 여기서 접으려한다. 계절마다 자연은 우리 사람에게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다. 요즘 같은 늦가을, 울긋불긋 아름답단 단풍잎들도 떨어지고 앙상하게 서있는 나무 가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산책길에서 만난 가지들에는 '비움'이라는 단어가 걸려 있었다. 비움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임을 보여주는 계절, 만물이 때가 되면 비울 줄 알고, 비우는 것이 더 새롭게 그리고 더욱 풍성해지는 길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것으로 여기기 쉬운 가운데 빈 공간에 있다는 가르침이다. 딱딱한 겉질은 오히려 다른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진정한 쓸모 있음은 못 만들어 낸다. 이렇게 사물의 존재는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네 인간들은 비우려하지 않는다. 윌은 것 같고 놓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서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우는 것을 두려워한다. 많이 비워져 있는 그릇이 더 그릇인 것을, 비운 만큼 많이 채울 수 있고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속에 뭐가 그리 꽉 들어차 있는지 통들려 하지 않는(연평도 포격 때 콘크리트 지하 회의실에나 들어가 있었으니 더욱더 안 들렸겠지만) 그분, 귀 좀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국민의 소리도 잘 듣고 복측의 소리도 잘 들어 방향을 잘 잡아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쓸모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다. 이 마음도 비워야 할 욕심일까?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독자투고와 환영합니다 독자들에게 기쁘게 소식을 전합니다. 주위의 작은 이야기도,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정술

지난 10월 하순 6일간 농수산업 성공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을 다녀왔다. 지방의회의원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질타를 받아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은 연수의 목적과 일정을 세심히 검토한 후 연수를 결정해야 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기획한 이번 연수 일정은 농업 활성화의 모델이 되는 모쿠모쿠 수제농장, 어업협동조합과 북어 가두리 양식장 등 선진 일본 농어업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들로 짜였다. 또 우리 완도군의 섬 개발과 연관이 있는 나오시마 섬, 쿠라하시

출하고 1차 산업의 생산품을 가공·브랜딩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수산업의 활로를 찾고 있었다. 특히 섬 전체를 예술 작품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오시마 섬의 사례를 연구하여 슬로시티 청산도 등 완도군의 섬 개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게 되었다. 이 섬의 지주미술관은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 콘드 나스트 트래블러지(Conde Nast Traveler)가 선정한 죽지 전에 가보고 싶은 7대 명소중 하나다. 일본에서 가장 못 사는 섬 나오시마가 최근 한 해 50만 명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것은

청산도를 日 나오시마처럼 만들자

자마 해산 굴(석화) 공장, 기타히로시마 초 농가 민박에서의 숙박, 소바 메밀 국수 체험장 등도 방문했다. 쿠라하시 시민센터와 기타히로시마 초 관청을 방문해 그곳 공무원들과의 진솔한 만남도 가졌다. 이를 통해 일본 농수산업 성공사례 뒤에 가려진 젊은이들의 이농 현상, 인구 감소 등 농어촌의 문제점에 대해 동병상련의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 도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농산촌 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농산촌 교류 프로젝트도 일본의 정권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에 중앙정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 농수산업도 FTA 등 뿌리고 거두는 전통방식에서 세계화의 대세에 순응하여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수익을 창출

바로 지주미술관의 공이 크다. 성공의 기반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과 화려한 자연 풍경이 있었다. 자연과 잘 어울리는 노출콘크리트 기법으로 건물을 세운 뒤 자연의 빛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래의 '수련' 전시기획도 돋보였다. 남다른 기획력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 낸 것이다. 완도에도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름다운 섬, 청산도가 있다. 영 화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청산도는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제는 청산도를 비롯한 남도의 아름다운 섬들을 일본의 나오시마처럼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완도군 의회 의원>

미네랄 풍부한 천일염 품질인증·등급제 추진 시급

최근 회사 업무로 프랑스에 다녀왔다. 관광도중 프랑스에서 에펠탑, 부르보 박물관과 함께 계랑드 소금이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계랑드 소금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소위 명품 대접을 받고 있었다. 국내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천일염 이야기를 들은 필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천일염은 계랑드 소금보다 미네랄 성분이 3배나 많은 것이다.

우리 전남·북 해안 곳곳에서는 최고급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홍보와 지자체의 노력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천일염 생산지를 조직화하고 품질인증, 등급제 시행 등을 추진하여 천일염을 더욱 고급화해야 하겠다.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품질의 천일염을 산업화하고, 한식 세계화의 선봉대장으로 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겠다. <김진우·전남 여천시 안산동>

無等鼓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은 판도라다. 판도라는 제우스가 신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 준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 내려 보낸 인물이다. 제우스는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벌해 줘서 여신을 닮은 처녀를 빚게 한 다음 여러 신들에게 자신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하게 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함께 교태, 거부할 수 없는 욕망

모에 반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고, 평화로운 결혼생활을 즐기던 어느날 판도라가 호기심을 참지 못해 항아리를 열면서 슬픔과 질병, 가난과 전쟁 등 온갖 재앙이 인간 세상에 퍼지게 됐다. 판도라가 받은 것은 원래 항아리였지만 구전 과정에서 상자로 바뀌게 됐다. '판도라의 상자'는 인류의 불행과 희망의 시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유명하다.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라는 판도라에게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한 후 인간세계로 내려 보냈다. 불행을 예견했던지 프로메테우스는 갑카스 절벽으로 형벌을 받으러 끌려가 전에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제우스가 주는 선물은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미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電文) 내용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전세계를 뒤엎고 있다. 25만건이 넘는 문건 가운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도 1980건이고 선 당시 정보도 480건

에 달해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때처럼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상자 안에 희망이 남아 있었듯 외교 전문 공개가 '정보의 비대칭'(수요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제우스가 주는 선물은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미

선 당시 정보도 480건에 달해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때처럼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상자 안에 희망이 남아 있었듯 외교 전문 공개가 '정보의 비대칭'(수요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제우스가 주는 선물은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미

Table with 2 columns: 광 卍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editorial.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